



EBS 다큐프라임 <아시아 원시부족 탐험> 방송 : EBS TV 9월 14일~16일 21:50~22:40

아시아 원시부족 탐험

세계 대륙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거대한 땅, 아시아

인류 문명이 꽃필 수 있는 모든 면적이 살아 숨 쉬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시부족이 그들만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몸소 터득한 현자(賢者)들이자 원시의 종교, 문화, 풍습 등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인류의 화석, 아시아의 원시부족을 만나본다. 리 홍지혜 서적 김홍수, 이승건

1편 아시아의 흑진주, 필리핀 두마카트족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 가는 원시부족들. 한때 문명의 잣대는 그들을 비개와 야만으로 폄하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자연환경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방식을 통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일 뿐.

적도와 태평양 그리고 7,107개의 섬들의 나라, 필리핀에도 그 수만류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간직한 100여 개의 원시부족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제작적이 단단 필리핀 루손섬 북동쪽 이너윈섬의 주인인 두마카트족이 있다. 적도의 뜨거운 태양 때문일까? 아니면 아프리카로부터 온 니그로 자종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일까?

필리핀의 여러 원시부족 중 유일하게 두마카트족의 피부색은 검고 곱슬머리다. 일본의 전통 스포 의상을 떠올리는 복장 차림에 검은 얼굴을 한 두마카트족은 정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부족답게 땅에서는 백발 백중의 활쏘기 실력음, 바다 위에서는 뛰어난 다이빙 솜씨와 수영 실력을 뽐낸다. 오직 작살 하나만 가지고 수심 20m까지 들어가서도 물고기를 좇아 자유롭게 유명을 하는 모습은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고, 자유롭다. 인간의 몸이 지닌 무기와 한계에서 벗어나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된 것처럼.

뎀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또 다른 생체터는 정글. 한 덩어 한 번 날을 장해 버릴로 들소, 멧돼지를 사냥하고, 하루하루 자신들이 먹음 만큼만 자연에서 얻





수 친과 농안 이어 온 원시생활의 지혜



원시생활의 필수품, 나무 뱀장고인 두마카트족에게는 전용 뱀장고가 있다. 바로 하나의 나무를 이용해 만든 나무 뱀장고! 구려 민족은 동인 심상하게 보편이 가능하다. 수분도 많고, 수액이 끈기롭기 때문에 치타하는 아나남 나무를 활용한 음식 조항법이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의 원조는 두마카트족? 두마카트족이 다이빙을 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는 운동이다. 땅에 손을 잡고 발을 바다 위로 끌어 올리는 데 마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과 흡사하다. 그 접목과 간격을 키우기 위해 부족마다 물이 몸을 공처럼 만들어 저글링 게임을 한다. 네댓 명이 팔려 낚는 사람이, 승리한다.

바자우족의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나무 껍질이 금방 부스이 될 것 같고, 걸보기에 영성한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이지만 단 한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바자우족의 수상가족, 대주 허르, 젊은이들이 바다 밑에서 다리 보수를 하는 숨은 노력 덕분에 견재할 수 있었다. 또 어느 집에 가더라도 정갈하게 정돈된 나무 우습에 스타프를 깜빡 놓라기 했던 것은 어수선한 집안이 열사의 대상이 되는 독특한 전통문화 덕분이었다.

인도네시아 오저마을에서 만난 백설기 아스맛족 사람들의 수직인 시구나무, 나무를 가로막지만 속살이 나오는데 짓어간 후 쿠를 이용해 울과 함께 걸러낸다. 그 상태로 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굳어 백설기와 같이 된다. 아스맛족은 이걸 불로 구워 먹는다.

오미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삼차 파괴되는 벽어사슬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점차 개체 수가 줄고 있는 부손선 동물들의 운명은 어찌면 200여 명 남짓 남은 두마카트족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부족의 삶과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국내에선 한번도 볼 수 없었던 두마카트족의 생생한 원시생활이 공개 된다.

2편 바다의 방랑자, 말레이시아 바자우족

국토의 4분의 3이 밀림과 습지로 우거져 있고, 에베랄드 및 바다와 수많은 섬으로 둘러싸인 말레이시아. 그곳에는 바다를 떠돌며 살아가는 원시부족, 바자우족이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르네오 북부 시마주를 중심으로 널리 흩어진 바자우족은 서로 다른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다 위에서 태어나 바다 위에서 죽을 때까지 삶을 이어가는 공동된 숙명을 가진 채로, 육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 뱃뚝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바자우족들은 '바다의 쌀'이라 불리는 해초, 아갈아갈을 재배한다. 바다가 깊어 아갈아갈을 재배할 수 없는 바자우족에게는 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참치잡이법이 있다. 오징어 먹물이 담긴 버넛봉지를 낚시 바늘에 걸 후 바다에 던지는데, 이때 살짝 구멍

을 낸다. 바다 속에서 퍼진 먹물통의 냄새를 맡고 수m나 떨어진 참치 떼들이 물러드는 것. 비끼에 걸린 참치를 주낙으로 건져 올려 잡는다.

길이 10m, 폭 2m의 작은 배에서 평생을 보내는 바자우족도 있다. 1년에 2~3개월 정도만 정박지에서 생활할 뿐 대어섯 명의 가족이 평생을 바다로 나가 고기를 삼으며 생계를 이어간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탄생은 이어진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태어날 아이와 자신의 생명을 두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바자우족의 삶은 산고는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의 몸 하나 기릴 수 있는 땅이 없어, 흔들리는 파도 위에 몸을 맡긴 그들의 삶은 고되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어느 부족보다 밝고 건강한 웃음을 지닌 이들이 바로 바자우족이다. 바다의 신 '푸랑카노'가 풍량을 막아주고, 싱싱한 물고기들을 안겨주며 아픈 자의 몸까지 치료해준다고 믿는 사람들. 바자우족은 삶의 터전인 바다와 죽어서 자신들이 고향 땅을 함께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다.

3편 살아있는 원시인류, 인도네시아 아스맛족

인도네시아 동쪽 끝, 아리안자야에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부족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종족으로 알려진 아스맛족이 살고 있다.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지인들도 쉽게 발견하지 않는 아스맛족을 만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주머니인 강과 바다를 건너는 갯벌로 찾아간다. 첫 만남에서 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아스맛족의 모습은 전쟁의 승리 후 상대방 부족장의 머리를 버틴 무시무시한 식인 풍습이 불과 20년 전까지 있었던 원시의 땅에 왔음을 짐작 시키게 한다.

전라도의 두 배가 넘는 넓은 갯벌지역에 나무를 이어 붙여서 지은 수상가옥에서 살고 있는 아스맛족에게 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의미다. 자신들이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아스맛족 남자들은 조각을 배워야 하며, 집은 물론 나무로 부담을 만들어 죽은 영혼들이 편히 쉬 수 있게 한다. 밭물과 썰물의 흔들림 속에 살아온 삶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살고 싶었던 바깥은 아니었을까.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부족과의 배신투쟁 재인. 30cm, 길이 10m의 나무로 만든 좁은 배에서 벌이는 배 전투는 진동 북 소리와 함께 강력한 원시의 향기를 진한다. 01

〈아시아 원시부족 탐험〉 정성석 PD

Q1 아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해에 선보인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지역이라 더 친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렬한 햇살 덕분에 쉽게 그물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 덕분인지 나뭇 형제(?)처럼 반겨 주는 아시아는 늘 친숙하다. 자신들이 먹을 음식도 부족한테 이방인에게 선물 양보하는 후덕한 인성, 자연과 하나가 되어 적응하는 지혜와 속임이 없는 그곳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깨끗하고 해맑은 웃음을 저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Q2 〈아시아 원시부족 탐험〉 촬영의 주안점은?

잔잔하면서 그들의 삶이 녹아 있는 영상을 통해 원시생활을 생생하게 전하려 했다. 그래서 원시부족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동화되고 싶었다. 우리 눈에 부족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지만 그들에게는 현대인들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흥미로운 삶의 지혜를 가졌다. 촬영 내내 그들의 문화와 전통방식을 존중했고, 카메라 렌즈도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촬영했다.

Q3 오지에서의 촬영,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다.

빈대, 벼룩이 스태프들을 밤낮으로 괴롭혔다. 햇살이 뜨겁고 강해 아침 9시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원시부족민들이 영양 섭취가 부족해 체력이 떨어져 보통 한 두시간 촬영 후 서너 시간은 쉬어야 했다. 취재장비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스태프의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오지에서의 촬영은 PD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운다. 그럼에도 오지 촬영만 20여 년. 오지는 나를 살리게 만들고, 친근한 고향과도 같다.

Q4 원시문명을 위협하는 위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시부족들이 달콤한 사탕이나 커피로 물물교환을 하더라. 정글의 과일보다 가공식품의 달콤함을 경험한 것이다. 신호가 없어 터지지 않는 휴대폰이 언젠가 작동하리라 믿고 있는 아스맛족의 젊은이를 통해 세대간 차이도 볼 수 있었다. 또 원시부족도 엘리노 등 이 상기후 현상에 예외일 순 없었다. 과거에 풍족했던 비가 이제는 오지 않아 생활비의 3분의 1을 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이 상기후로 수면이 점차 상승, 바닷물이 수상가옥에 근접할 정도로 차오르고 있다.

Q5 영상에 담지 못한, 뒷 이야기가 있다면?

7~8년 전에 동남아 원시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 원시문명이 급속도로 파괴된 상태. 이미 내셔널지오그래피와 디스커버리 팀도 아시아지역에서 거의 철수한 상태. 앞으로 몇 년 후면 지금의 모습도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서글픔이 앞섰다. 원시부족의 문화를 영상으로 계속 남겨야겠다는 소명이 생겼다.

2008년 EBS 다큐프라임 〈원시고래잡이마을 라마레라〉,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 외에 KBS 〈양자강〉, 〈도전 지구대탐험〉, SBS 〈체질 세계의 오지〉 등 오지 촬영만 20여 년 동안 진행한 전문 연출가이다.

